

우리를 일깨우는 잠언이라는 영약

아포리즘 모음집 <인생의 급소를 찌르다>

표정훈 (출판 평론가)

스런 치질이 남긴 말 가운데 이 린 것이다. '격언집을 읽는 것은 무지한 사람에게는 무척 좋은 일이다.' 그런데 이 말도 일종의 격 언으로 남아 후대에까지 전해지고 있으니, 격언에 대한 조롱이나 비판도 격언이 되는 아이러니라고나 할까.

아포리즘(급언·격언·경구·잠언)은 사전에 따르면 '깊은 체험적 진리를 간결하고 압축된 형식으로 나타낸 짧은 글'을 뜻한다. 이 책은 동서고금의 유명한 아포리즘들의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꼽씹는다.

(타입)지 유럽판 편집자인 저자는 아포리즘 광을 자처한다. 10대 초반부터 아포리즘 수집에 몰두했으며, 지금의 아래와 인연을 맺게 된 것도 아포리즘 때문이었다. 대학 시절 저자는 일부분을 잘라낸 지구의 안에 아포리즘이 적힌 종이 쪽지를 넣고, 학생들에게 쪽지를 하나씩 풀어 읽게 하는 퍼포먼스를 했다. 쪽지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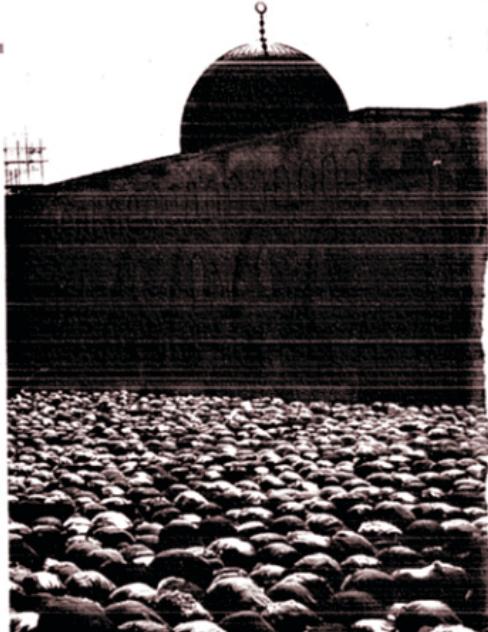


제임스 기어리 저작
강주현 옮김, 갤리온 펴냄

짧은 학생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다음 날 저자의 우편함에 자신이 짧은 아포리즘을 빼트는 새로운 아포리즘을 적어 넣어두었다. 그 학생은 저자의 아내가 되었다.

아포리즘의 다섯 가지 법칙도 소개

아포리즘 광으로서 저자는 이렇게 말한다. '아포리즘은 당신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다. 아포리즘은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아포리즘은 오



자지 제임스 기어리는 '한 시간의 목상이 일 년의 송배보다 낫다'라는 경구에서 자기 성찰에 대한 아포리즘을 발간한다.

래 전에 잊혀진 진리를 단숨에 되살려낸다. 아포리즘은 우리를 행동하게 만든다. 아포리즘을 읽고 깊은 시선 내뱉고 할 그대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연주는 무시하고 악보만 읽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아포리즘은 우리 삶에 전정으로 필요한 영약(靈藥)이다.'

아포리즘 수집가는 제임스 기어리 말고도 많다. 특히 유명한 아포리즘은 남긴 사상가와 문필가 가운데 몽테뉴가 그렇다. 몽테뉴는 그리스 고전과 기독교 교부들의 글 가운데서 아

참하고 소박한 우리 밤상 이야기

여행의 자유 꽁글자 피낸 /
320쪽 1만5천원

연극·대중기호·영
론·가로·활약·한은·지
은·아·기·우리·알·잇
우리·음식·에·대·해
글을·풀어·겠다.·서울
에·오·래·살았고,
천기는·개성·외기는·전·복·시립은·경
남이·된다·한국·음식·중요한·계보는
두루·풀리·한은·설·음식·아이·아이·자·
요리책·이·우리·음식·문화사이다.

그래도 희망은 노동운동

하종강 저술 후마니스트 피낸 /
370쪽 1만원

그림은 1년 중 3백
일 이상을 전국 각지
로 돌아다니며 노동
교육을 하는 노동 운
동 전문가이다. 노동
운동을 자신의 문제
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노동 문제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은 보통 사람들을
위한 책이다. 노동 현장과 이론에 밀
은 지식이 글이 실력적 있다.

우연의 법칙

승태관 글라인 저술 유흥미 올길
출판지사한우스 펴냄 / 352쪽 1만3천원

소설가가 일상한 법
칙을 따라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로 움직인다는 것을
밝혀낸 양자역학은
모든 것을 예측할 수
있다는 세계관을 전파했다. 물리학·
철학·뇌과학·심리학 등 여러 학문
의 측면에서 '우연'이라는 주장적 주
제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즐거운 소풍

여행에 자유 하자면 사전 대술바람 펴낸 /
206쪽 1만2천5백원

부자가 버스 타고
전철 타고 아이랑
함께 가는 서울의
예쁜 절집 20'이다.
주말에 가족 나들이
를 해야겠는데,
적당한 곳을 찾기 힘들어하는 수도권
사람들을 위한 책이다. 사전은 책은
하지만에는 서문에 이렇게 썼다. '서
울에도 이런 곳이 있다네'

포리즘 54개를 품아 서재 천장의 나무 블보에 새겨두었다. 그 가운데 에페테스의 아포리즘이 눈길을 끈다.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다.'

이 책에는 우리에게 날리 알려져 있지 않은 아포리스트들도 많이 등장한다. 이를테면 풀란드의 스타니슬라브 예르치 래크(1909~1966)가 있다. 부유한 귀족 가문의 후손이었지만 몰락했고, 공산당 운동에 적극 가담했지만 나중에는 공산당과 전제주의를 비판하는 입장에 섰던 그는 풀란드 공산당의 노선과 전체주의를 비꼬았다. 언론 자유가 없는 현실에 대해 그는 "세상을 보는 창은 신문으로 가려질 수 있다"라고 말했고, 집단주의에 대해 "는사태가 났는데 눈송이가 책임감을 느끼겠는가"라고 고집었다.

책의 마지막에는 아포리즘의 다섯 가지 범칙이 나와 있다. 첫째, 간결해야 한다. 명확하게 순식간에 파고드는 통찰이어야 한다. 둘째, 단정적이어야 한다. 아포리즘은 설득이 아니라 선언이며, 제안이 아니라 공언이다. 셋째, 개인적이어야 한다. 일반화시켜 말하는 아포리즘은 강도가 떨어지기 마련이다. 넷째, 비를 머야 한다. 의표를 빼며 순간적으로 놀라게 만들지 못한다면 아포리즘이 아니다. 다섯째, 철학적이어야 한다. 오랜 습관을 버리고 새로 운 길로 나서게 만드는 철학적 통찰이 아포리즘이다. 이 책과 함께 읽으면 좋을 책으로 '영어 표현 177가지로 배우는'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것이 서양 문명이다>가 있다.

'가정의 달' 겨냥한 책·봇물

제목에 '부모·가족' 등 붙여 관심 끌어... 어린이 대형 기획물도 눈길

출

판인들은 베스트셀러 도서의 조건으로 '3T'를 말한다. 3T는 시점(Time), 독자층(Target), 책 제목>Title이 다. 적절한 시기에 핵심 독자층을 겨냥해 관심을 끄는 제목으로 책을 떠내는 것이 중요하다

작들이 쏟아져 나왔다.

5월에는 어린이 관련 출판물도 쏟아져 나온다. 출판 전문지 <기획회의> 제174호는 역사 교양, 초등 논술, 학습 만화, 아기 그림 책, 과학 교양, 고전 교양 등 분야별로 어린이 책을 집중



는 얘기다.

이번 주에 출간된 신간들 가운데는 '시점'에 충실했던 책들이 많았다. <(아버지)를 위한 변명>(리디스북), <내내는 부모가 아이를 망친다>(한문화), <자식으로 산다는 것>(길은강), <가족과 함께 성공하기>(한스킨텐츠) 등, 5월 가정의 달에 맞추어 낸 서적들이이다.

5월 초에는 석가탄신일에 출간 시점을 맞추어 <삶의 나침반 1·2>(열립림), <붓다의 마지막 여행>(열대림), <비록 평화의 참승승 달라 이 라마>(문이당), <기도>(명진출판) 등 불교 서

분석했다. 어린이 책은 1년 내내 끊임없이 나오는 편이지만, 어린이날 전후로 나온 대형 기획물이 눈에 띈다. 1천만 부가량 팔린 <من나라 이 웃나라> 시리즈로 유명한 이원복 교수는 발간 반도를 다른 <가로세로 세계사> 제1권(김영사 펴냄)을 내놓았다. 창비는 <제미있다! 우리 고전 13번째 권 <전우치전>을 펴냈다.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당뇨와 친구하라>(김영사 펴냄)는 어버이날이 있는 5월에 부모님을 위한 선물이라고 할 수 있다.

차현석 기자 cha@sisapress.com

내 DNA를 가지고 대체 뭘 하려는 거지?

비아이티 토연 지음 김성호 흥미
황금부엉이 펴냄 36쪽 1만5천원

노벨상 수상자 등 과학자들을 인터뷰하고, 신화와 전기를 살펴보면서 과학의 인생, 즐기면서 연구, 인간 복제, 생물공학에 대한 이야기를 엮어놓았다. 저온이나 압지는 질문은... 줄거리로 흥미를 알 수 우리에게 의미심장하다. '우리는 어린 과학자들을 믿을 수 있을까?'

상생과 개혁의 문화지대 세만금문화권

김성환 외 저음 청교도 사랑 폐널 /
456쪽 1만5천원

전체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학자들이 '세만금문화권'의 자연과 사람이 흥미로운 병 만난다. 세만



금 지역의 특성적인 문화 으로 조사하고, 고유한 문학적 동질성을 추출했다. 철학적 바탕에서 세만금 살리기 인을 찾으려 한 인문학 연구다.

눈을 뜨시오, 당신은 이미 죽었습니다

홍기 토카토북 외 저음 퍼블리 흥미
도서출판 강성판 / 226쪽 1만원

교과·문학·속전 2006년 서울, 젊은 57기집에 오는 50개 국의 젊은 작가들이 가운데 글을 소개되는 이름 작가들의 단편소설을 모았다. 풀란드 작가 올가 토크로우에 따르면 '문학은 많은 도시로 포개진 양한 국가다'. 이 '영광 국가'는 날설고도 매력적이었다.

식민지 조선의 일본인들

다카하시 소지 저음 이수수 흥미
역사비평사 펴냄 / 240쪽 1만2천원

다양한 사람을 통해 식민지 조선에서 살았던 일본인의 역사와 문화를 살펴보며 연희회 정기연 역사서이다. 일본·상인·개화사 등 편찬한부터 1945년까지 70년 동안 조선에서 살았던 일본인의 다양한 군상을 통해 일본 식민지에 특색을 살피적으로 밝히고 있다.

